**게라마 제도를 만든 암석**

눈앞의 바위는 검은색 천매암입니다. 약 1억 년 전에 따뜻한 바다의 해저에 퇴적된 진흙이 나중에 굳어져 지하의 압력을 받아 천매암이라고 불리는 층이 되었습니다. 30° 정도로 기울어져 보이는 지층은 대지의 커다란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게라마 제도에서는 오키나와다운 류큐석회암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드물고, 이외에 사암과 녹색편암이라는 암석으로 성립되었습니다.

길가의 바위가 게라마 제도의 기원을 일깨워줍니다.

사암은 자마미지마 섬의 지시 전망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녹색암류는 게루마지마 섬에서 많이 볼 수 있고, 아카대교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산호초에서 유래하는 류큐석회암은 도카시키지마 섬 해안에서 드물게 볼 수 있을 뿐이고 게라마 해역의 해저 80m 전후에 존재합니다.